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8월 29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민간협력과	담당자	• 민간협력팀장 한은희 ☎440-3391 • 담당자 박인숙 ☎440-3398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불필요·비효율 위원회 정비로 시정혁신 시작

- 현재 운영되는 270개 위원회 중 정비대상 27개 최종 선정 -
- 올해 안에 8개 위원회는 폐지·통폐합, 비상설 19개는 일괄 정비 예정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정혁신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27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시정혁신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 정비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 중복 또는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 존치는 필요하나 안건이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는 등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시에는 270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시·도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숫자다.

시는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회 171개를 제외하고, 조례나 규칙에 따라 운영 중인 나머지 9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 필요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51개 위원회를 1차 정비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시정혁신준비단과 소관 부서가 참여한 심층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7개 위원회를 최종 정비대상으로 결정했다.

시는 향후 소관 부서의 내부방침 결정과 조례 개정절차 등을 거쳐 정비대상 위원회 중 2개는 폐지하고, 6개는 통폐합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정비절차 이행을 위해 비상설 위원회 19개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에서 하반기 중 일괄적으로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위원회 정비 이후에도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민간협력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위원이 위원회 3개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거나 6년을 초과해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위촉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신규 위촉 또는 재위촉 되는 위원은 내년에 운영될 위원회 학교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백민숙 시 민간협력과장은 “위원회가 시민의 시정참여 기능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